여수 문수동 아파트 신축 난항

주민 생활에 직·간접 피해 예상…해결 우선

견본주택 반려, 토석채취·착공도 반려 예정

여수시 문수동에 10개동 722가구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선행 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수시 허가민원과도 주민 민원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건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민원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뒤 합의 여부에 따라서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 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사업이다.

이후 사업자는 별도로 2015년 3월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개월 후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했었다.

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D아파트 건축주는 여수정보과학고교 인근 산 4만4319㎡ 부지에 15층 높이 아파트 10개동 722가구를 건축할 예정이다.

건축부지 인근에는 문수초교 등 4개 학교와 캐슬하임아파트, 코아루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증인 못 나가" 대면 불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2월15일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원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 제출

10일 朴 재판서 법정 대면 예상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알렸다. 건강상 문제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이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예정보다 서둘러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매주 4차례 열리는 재판 진행 방침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뉴시스

비가 왔지만 서울과 충남, 호남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지만 안성과 화성 등 가뭄 집중지역에 해갈에는 다소 부족한 비가 내린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안성 마둔저수지 바닥이 여전히 말라 있다.

초중고 교사 절반 이상, 수능·내신 절대평가 '찬성'

초·중·고교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교학점제와 교장공모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등에는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4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열흘간 초·중·고교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5%)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078명(51.9%)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826명(39.8%)으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가 505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완화'(307명·28.5%),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가능'(216명·20.0%) 순이었다.

반면 변별력 문제와 관련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변별력 확보 어려움'(401명·48.5%),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 우려'(282명·34.1%) 등의 답변을 내놨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답한 교사가 1143명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교사는 770명으로 37.1%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 부담 완화'(560명·49.0%)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 방법'(502명·43.9%) 등이 주를 이뤘다. 부정적 견해의 이유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학별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 및 사교육비 증가'(340명·44.2%) '성적 부풀리기 우려'(287명·37.3%) '학교 간 학력차로 고교등급제 우려'(140명·18.2%) 등을 꼽았다.

뉴시스

IS, 모술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최후의 저항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살폭탄을 활용한 공격으로 이라크군의 모술 재탈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미 알 아리디 이라크 특수부대 소장은 AFP에 "주로 저격수와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펼쳤던 IS 무장세력이 최근 사흘 동안 자살폭탄을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여성, 특히 10대 소녀까지 자살폭탄으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모술 서부의 구시가지에서 도시를 빠져나가는 시민 틈에 섞여 있던 여성 2명이 이라크군 병사를 노려 자폭해 1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이날 폭발물을 지니고 있던 여성 7명이 이라크군에 접근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오후에는 서부 안바르주에 소재한 피난민 캠프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식 부르카를 입은 사람이 자폭해 14명이 숨졌다.

살람 후세인 이라크 특별작전본부 중장은 AP통신에 "모술에서 일어나는 자살폭탄테러의 범인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이는 민간인과 보안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악의적이고 비겁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자살폭탄 공격이 증가하자 이라크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여성들에게는 부르카 등 몸을 가리는 의복을 벗고 남성들에게는 셔츠를 벗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모술 재탈환 작전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모술은 IS의 이라크 내 핵심거점이다.

모술을 포위한 이라크군은 6000여명이던 무장세력이 현재 300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모술 탈환까지 짧게는 닷새, 길게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라흐야 라술 이라크군 대변인은 앞서 국영방송을 통해 "승리가 가까이에 있다"고 발표했다.

에어아시아, 조류공격으로 엔진에 '불꽃'

기술적인 문제로 지난달 회항한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에어아시아 사의 여객기가 또다시 사고로 회항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33분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D7207편이 비행 중 굉음과 함께 엔진에 불꽃이 일어 호주 브리즈번으로 회항했다.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일부는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이 폭발하거나 불이 붙은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승객 에릭 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속적으로 불꽃이 일었고, 사람들은 울며 소리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에어아시아는 이번 비상상황의 원인이 조류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345명의 승객과 1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승객 359명을 태운 에어아시아X 여객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폭발음이 들렸으며, 여객기가 세탁기처럼 흔들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파키스탄 유조차 화재 사망자 200명 넘어

지난주 발생한 파키스탄 유조차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키스탄 아흐메드푸르 이스트 인근에서 지난달 25일 2만5000 l 의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전복된 뒤 폭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쏟아진 기름을 담으려던 많은 주민들이 숨졌다.

현지 관리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많은 중상자들이 추가로 숨지면서 현재 사망자 수는 206명으로 늘어났다.

유조차는 카라치에서 라호르로 가던 중 급커브길에서 타이어 펑크로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쏟아진 기름을 담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버린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시신 중 상당수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불에 타 DNA 검사를 통해서만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